

한국 1920년대, 나체화를 둘러싼 예술과 외설의 사회적 의미

배홍철

신문박물관 연구원, 도시사회학 전공
realconte@hotmail.com

- I. 머리말
- II. 나체화, 그리고 예술과 외설의 의미
- III. 초기 나체화의 수용과정
- IV. 예술과 외설 판단의 기준
- V. 맷음말

I . 머리말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여성의 알몸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서양 미술의 도입 및 인쇄매체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조선 후기 풍속화나 17세기 이후 주로 나타난 춘화(春畫) 등에서 반라 혹은 전라의 여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계층에서만 감상이 이루어진 탓에 사회적 관심이나 논쟁의 대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성 나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예술·외설 판단의 논의가 개입한 첫 사례는 1916년 도쿄 유학생 김관호가 그린 누드화 〈해질녘〉이다. 이 작품은 일본 문부성 미술전람회(이하 문전)에서 특선을 차지하면서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인 이광수가 송고한 기사를 통해 국내에 알려졌다. 《매일신보》에 실린 특선 기사에는 조선의 예술적 자부심에 대한 이광수의 논조가 드러나면서도 여성의 알몸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작 〈해질녘〉은 김관호의 다른 작품으로 대체되었다.¹⁾ 이 사건에 대하여 미술사 연구는 보수적인 유교사회의 분위기와 서양 미술에 대해 무지한 당대의 현실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다.²⁾ 이는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의 나체가 외설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예술 작품인 〈해질녘〉 역시 외설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해질녘〉을 예술작품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해석은 다분히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시대의 예술과 외설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상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 실제 1920년대 등장한 다양한 여성 나체 그림들이 ‘계재 불가’나 ‘대중공개 금지’ 등의 무조건적인 제재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여성의 알몸을 그린 그림을 ‘나체화(裸體畫)’라 일컬었는데, 〈해질녘〉과 같은 서양화뿐만 아니라 삽화나 사진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 였다. 그러나 나체를 그린 예술작품과 외설물을 구분하는 차별화된

1) 「김관호군의 요사이 그린 그림」.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전람회에 진열된 김군의 그림은 사진이 동경으로부터 도착하였으나 여인의 별거벗은 그림인고로 계재치 못함.” 《매일신보》, 1916년 10월 20일자.

2) Kim, Youngna, “Artistic Trends in Korean Painting during the 1930s,” *War, Occupation, and Creativity: Japan and East Asia, 1920–1960*(Hawaii University Press, 2001)

용어가 없었던 이 시기에도 일부는 예술로서 미술전람회에 등장하였고 일부는 외설물로 규제되었으며, 그 외 수많은 나체화가 대중매체에 수록 되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당시 예술과 외설판단의 기준이 단순한 나체 표현의 여부에 있기보다는 현재와는 다른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성을 제시한다.

이에 이 글은 한국 근대 나체화의 등장을 전후로 나타난 사회상을 조명함으로써 나체화를 둘러싼 1920년대 예술과 외설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에 등장한 삽화, 사진 등의 다양한 나체화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당시 나체화를 향한 대중의 시선과 사회적 허용·제재의 수위를 살펴본다.

본론에 앞서 나체화의 의미에 관한 혼선을 막고자 용어 사용을 재정립한다. 이 글에서는 나체화라는 용어를 모든 여성의 알몸을 그린 그림을 지칭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서양 예술로서 나체화는 누드화라 호칭하며, 누드화 및 누드 조각을 촬영한 사진은 누드 사진으로, 기타 나체화의 경우는 표현 양식에 따라 나체 삽화 등으로 표기하였다.

II. 나체화, 그리고 예술과 외설의 의미

20세기 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나체를 그린 그림을 '나체화'라 지칭하였는데, 현재 사용하는 나체화라는 용어와는 차이점이 있다. 당시 나체화는 알몸,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나체를 다룬 그림과 그 그림을 촬영한 사진 및 인쇄물 전체를 일컬었다.³⁾ 서양화를 비롯하여 서양 누드 조각의 사진 및 나체 삽화 모두가 나체화의 범주에 속했다.

반면 근대 연구에서 나체화라 함은 주로 서양 미술작품으로서 누드화(Nude Painting)에 한정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근대 나체화에 관한

3) 당시 남녀 간의 성교(性交)를 묘사하는 춘화(春畫)는 여성의 나체를 다루고는 있으나 나체 자체보다는 남녀의 성기(性器)와 체위(體位)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나체화와 구별되었다. 1920년대 춘화와 나체화에 대한 공식적인 구분은 확인할 수 없으나 1936년 「조선출판경찰개요」를 통해 발표된 풍속 괴란 신문지 출판물 검열표준은 춘화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나체화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반면 여성 나체화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며 음부를 노출했거나 남녀 간 포옹 접물 등의 사진 및 회화에 한해 금지하였다.

연구가 주로 미술사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상황과 맞물린다. 이들 연구는 서양 미술의 한 장르인 누드화의 등장과 전개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누드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도 관심을 두었다. 미술을 서구화의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이자 사회적 제도로 설명하고자 한 일부 연구들은 사회사의 영역으로 외연을 넓히면서 누드화를 문화적 변동의 중요 사례로 거론한다. 그러면서 누드화가 보수적인 유교문화와 새로이 등장한 근대 문화의 충돌 지점에 있다고 설명한다.⁴⁾ 미술사의 선행 연구들은 나체를 다룬 새로운 그림의 등장과 관련하여 다방면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연구대상을 누드화로 한정하고 이를 예술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당대 나체화를 둘러싼 사회사와 예술·외설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예술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20세기 초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누드화가 외설의 영역이 아닌 예술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조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누드화가 새롭게 나타난 나체 삽화와 복제사진과 같은 여타 나체화와 구별되어 제도적 미술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에 답하지 못했다. 둘째, 누드화 또는 작가라는 생산의 영역에만 연구가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이자 감상자인 대중들이 누드화 및 다른 나체화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어떤 시각을 공유하였는가에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준 연구가 가진 한계는 당시 나체화에서 예술과 외설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현 시점에서 정형화된 예술과 외설의 의미를 20세기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근대 나체화의 성격과 사회상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⁵⁾

예술과 외설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정의의 문제는 예술·외설 논란의 핵심인 동시에 확정적인 답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예술·외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예술 혹은 외설이라 말할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입증하

4) 김영나, 「한국 근대화화에서의 누드」, 『서양미술사학회』 5호(1993),

5) 이 지점에서 부르디외는 '완벽한 역사화'를 강조했다. 그는 근대 프랑스문학, 특히 폴로 베르의 '감정교육'을 조명하면서 플로베르의 "기획이 가진 독창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공간 속에 다시 집어넣어야만 진실로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완벽한 역사화'는 미술사가 박산달의 '시대의 눈'과 많은 부분 접점을 갖고 있는데, 부르디외 스스로도 박산달의 접근 방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에르 부르디외 저,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동문선, 1999), 139쪽.

지 못한 데 있다.

예술을 정의·증명하고자 한 노력은 불변하는 예술의 속성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논의의 초점을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을 구조화하는 외적 요인에 맞추었다. 대표적으로 단토(A. Danto)가 제시한 ‘예술계(art world)’라는 개념은 예술 그 자체보다는 예술을 규정하기 위한 이론이나 역사에 관한 지식, 즉 비가시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예술의 내적 조건을 의미한다.⁶⁾ 예술의 증명문제가 구조화의 조건과 외적 요인으로 외연을 넓히면서 예술은 사회학의 영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예술을 사회적 제도로 해석하면서 예술이란 예술가 및 비평가와 같은 예술 생산자들과 관련 기술들이 만들어낸 분석의 산물로 설명하였다.⁷⁾ 예술을 사회적 제도로서 설명하려 한 시도는 베커(H. Becker)의 ‘예술계(art world)’라는 개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⁸⁾ 그는 예술을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on)로 설명하면서 협력적 네트워크로서 예술계(art world)라는 사회적 순환체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공유하는 예술적 규범과 취향을 예술계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관행·관습(conventions, 이하 관습)’이라 정의하였다.⁹⁾

예술의 정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딜레마는 외설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역사학자 드잔(J. Dejean)은 근대 프랑스 포르노 문학을 조명하면서 ‘외설(obscenity)’이란 한 사회가 문화의 일부로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경험이나 사건들로, 시대에 따라 의미도 변화하는 동시에 재발명(re-invented)되는 것으로 설명했다.¹⁰⁾

6) Danto, Arthur, “The artworld,”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61(1964), p. 580.

7) 피에르 부르디의 저, 하태환 역, 앞의 책, 377~380쪽.

8) 사회학자 베커의 예술계(art world)라는 개념은 단토(A. Danto)가 제시한 예술계 혹은 미술계(art world)라는 개념과 의미를 달리한다. 김동일은 단토의 예술계 개념을 실체적 요소와 비실체적 요소의 결합으로 설명하면서 단토는 주로 비실체적 요소들에 치우쳐 있다고 하였다. 비실체적 요소란 실천적으로 체화된 이해로서 예술이론과 예술에 관한 술어의 구사능력을 말한다. 그는 베커의 예술계는 인적·물적 동맹들의 네트워크라는 실체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주장하면서 딕키(G. Dickie, 1998)가 제시한 ‘예술사회(art circle)’를 단토와 베커의 중간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김동일, 『예술을 유혹하는 사회학』(갈무리, 2010).

9) Becker, Howard, “Art as collective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1974), p. 774; Becker, Howard, *Art worlds*(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29, p. 67.

10) Dejean, Joan, *The Reinvention of Obscenity: Sex, Lies, and Tabloids in Early Modern*

결국 예술과 외설이란 대상에 내재한 정형화된 내적 속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동하는 가변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외설 논쟁이란 영역 간의 경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과거의 논쟁은 당대 예술과 외설이라는 영역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사적 기록이다. 이를 통해 당대 사회가 관습적으로 예술과 외설을 어떻게 의미 짓고 구별하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III. 초기 나체화의 수용과정

1. 일본의 초기 나체화의 수용과정: 1890년대

1920년대 한국의 초기 나체화 수용 양상에 나타난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탐색하는 데 앞서 국내보다 이른 시기부터 나체화가 등장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서양 미술의 도입과 함께

누드화가 등장하면서 예술·외설 논란이 발생했다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1890년을 전후로 나체화가 대중의 영역에 등장하자 당국의 적극적인 검열이 이루어졌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나체화가 범람하였다.

1889년 잡지 『국민의 벗(国民の友)』에 서양화법의 나체 삽화(그림1)가 등장하였다. 야마다 비묘(山田美妙)의 소설 〈나비(胡蝶)〉에 수록된 이 삽화



그림1-와타나베 쇼테이, 〈나비〉,
『국민의 벗』(1889)

Franc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 129.

는 프랑스에서 서양화를 배워온 와타나베 쇼테이(渡辺省亭, 1851–1918)가 그린 것으로,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았으며 잡지의 판매량은 급격히 증가했다.¹¹⁾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나체화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동시에 검열대상이 되면서 1910년에 이르기까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나체화의 공개 전시는 어려운 일이 되었다.¹²⁾

당시 풍속 검열은 나체 삽화에 국한하지 않고 서양 누드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술을 중요한 서구의 문화로 적극 수용하며 누드화를 도입하면 서도 대중에게 누드화를 공개하는 일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는 구로다 세이키(黒田清輝, 1866–1924)의 〈지(智), 감(感), 정(情)(1897)이 일본 근대 서양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출품되었지만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서양 누드화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대중매체를 통해 서양 누드화를 공개하는 것 또한 제재를 받았다. 1898년, 문학잡지 『신조월간(新朝月刊)』이 서양 누드화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누드화를 제공한 도쿄미술학교 교수들이 재판에 소환되었다.¹³⁾ 이 밖에 서양미술 화집과 단행본 또한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일본 내무성경보국(内務省警保局)이 발간한 『금지단행본 목록(禁止單行本目錄, 明治 21年–昭和 9年)』을 살펴보면 1890년을 전후로 이루어진 서양미술 서적

에 대한 검열수위를 확인할 수 있다.¹⁴⁾ 『금지단행본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서양미술자료(西洋美術資料, 1898)』(그림2)이다.¹⁵⁾ 이 화집은 1898년 출간된 6권으로 구성된 미술전집으로 그리스 미술부터 시작

하여 조각에서 회화에 이르



그림2-『서양미술자료』(1898)

11) 유모토 고이치 저, 연구공간수유 역, 『일본 근대의 풍경』(그린비, 2010), 164쪽.

12) Volk, Alicia, *In pursuit of universalism: Yorozu Tetsugorō and Japanese modern ar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pp. 56–57.

13) 최유경, 『일본 누드 문화사』(살림, 2005), 40쪽.

14) 日本内務省警保局, 『禁止單行本目錄, 明治21年–昭和9年』(1935).

15) 川井景一, 『西洋美術資料 1–6』(寫眞版印刷所, 1898).

는 다양한 서양 미술작품을 편집한 사진집이다. 1권은 서양 조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 여성의 누드 조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집은 1899년 풍속검열 대상으로 지정되어 금지 처분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1900년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나체 삽화 및 서양 누드화를 비롯한 모든 나체화를 다룬 대중 출판물이 전방위적으로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나체화에 대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풍속괴란’이라는 명목으로 대중이 나체화를 접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였다.¹⁶⁾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일본 형법 175조 외설물 배포에 관한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설적 문서나 그림, 또는 다른 형태의 외설물을 대중에게 배포, 판매, 전시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2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자 또한 동일한 형에 처한다.¹⁷⁾ 1907년 개정.

이 조항 안에는 ‘외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기준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¹⁸⁾ 그러나 앞선 검열사례를 살펴보면 적어도 여성의 알몸 자체가 외설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사회에서 나체화를 둘러싼 외설 판단의 기준은 표현의 양식이나 맥락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알몸이라는 대상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술로서 나체화, 즉 누드하는 어떻게 외설과 구별되어 예술의 영역에 귀속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기준이 외설과 예술의

16) “나체화가 한번 신문 잡지에 삽화로 실린 이후, 각종 나체화는 에조시(絵双紙) 가게의 대표상품이 되었으며, 세인들의 큰 비평대상이 되었다. 끝내는 신문지상의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내무대신은 이것이 풍속을 해친다고 모조리 발매를 금지했다.” 『조야 신문(朝野新聞)』, 1889년 11월 17일자. 유모토 고이치 저, 연구공간수유 역, 앞의 책, 164쪽에서 재인용.

17) 1907년 일본 개정 형법 영문 번역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person who distributes, sells or displays in public an obscene document, drawing or other obje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work for not more than 2 years, a fine of not more than 2,500,000 yen or a petty fine. The same shall apply to a person who possesses the same for the purpose of sale.”

18) 당시 외설물 검열에서 정부기관이나 법정의 권위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차원의 책임수준에 국한”되었다. Alexander, James, “Obscenity, Pornography, and Law in Japan: Reconsidering Oshima’s ‘In the Realm of the Senses,’ ”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4(2003), p. 154.

경계에 작용하였는가.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모든 나체화를 외설로 규정하고 통제했던 풍속 겸열은 특별실(特別室, special room) 제도라는 방식으로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구분했다. 1903년부터 시행된 특별실 제도는 작가들이나 미술전공 학생 등 제한된 인원에게만 누드를 제작·감상하도록 허용했다.¹⁹⁾ 이 제도의 특징은 대중을 차단하면서 미술을 감상의 영역이 아닌 제작·생산의 영역에 한정시킨다는 데 있다. 일부 감상이 허용되는 경우도 새로운 제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예술이란 대상에 내재한 특수성이 아닌 기술이자 제작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면 국내에서 대중매체에 나체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1920년대에는 다른 양상이 이어졌다.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조선미전)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단행본 등에서 나체화가 별다른 제재 없이 범람하였으며 나체화집의 광고가 신문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2. 국내의 초기 나체화의 수용과정: 1920-1927

한국 근대 미술사가 최초의 서양 나체화로 지목하는 작품은 1916년 김관호의 〈해질녘〉이다(그림3). 일본 문전 특선 소식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이 작품은 최초의 공식적 제재를 받은 작품이면서도 작품 자체가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아 새로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한국 근대사회에서 본격적인 나체화의 등장은 대중매체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1922년 조선미전에 일본의 서양 나체화가 등장하여 일부 관람자들은 직접 나체화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대다수는 대중매체를 통해 나체화를 접할 수 있었다. 1920년, 신문 및 잡지 등의 인쇄 매체에 대한 일본의 제재가 줄어들면서 근대 한국 사회에 본격적인 대중출판문화가 시



그림3-김관호, 〈해질녘〉(1916)

19) Volk, Alicia, *op. cit.*, pp. 59-60.

작되었다. 1920년대의 대표적인 대중 잡지 『개벽(開闢)』(1920. 5)이나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등의 민보가 이 시기 창간되었다. 또한 단행본 시장이 성장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출간된 다양한 서적이 국내에 유입되는 시기였다.

1) 나체 삽화

1920년 11월 『개벽』지에 여성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삽화(그림4)가 등장하였다. 「인류학(人類學)에 대(對)한 개념(概念)」이라는 제목의 기사 1면에는 이국적인 의복을 걸치고 가슴을 드러낸 반라(半裸) 삽화가 등장한다. 이 삽화는 1921년 2월 「여성운동(女性運動)의 제일인자(第一人者) 엘렌케이」, 1922년 5월 「영창당(永昌堂)」이라는 경성의 약국광고에도 등장하였다. 이 삽화는 기사 본문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중의 시선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나체 삽화를 활용한 사례는 주로 상품 광고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신문의 의약품 광고에서 두드러진다. 《조선일보》 1927년 11월 5일자에 게재된 재생당약방(再生堂藥房)의 「활명액(活命液)」이라는 소화제 광고에는 반라의 삽화(그림5)가 등장한다. 이 나체 삽화는 양팔을 정면으로 들어 올린 여성의 과감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소화제라는 제품과는 별다른 관계점을 찾을 수 없다. 반면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성(性) 기능 강화를 위한 의약 광고가 다수



그림4-『개벽』(1920. 11, 左), (1921. 2, 중), (1922. 5, 우)



그림5-「활명액(活命液)」 광고, 《조선일보》, 1927년 11월 5일자

등장하면서 삽화의 역할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²⁰⁾

가공(可恐)할 뇌일혈(腦溢血)과 혈관(血管)의 경화(硬化)

▲ 뇌일혈(腦溢血)과 중풍(中風)을 니르키는 것도

▲ 노쇠(老衰)와 조노(早老)를 초치(招致)하는 것도

▲ 성욕(性慾) 정력(精力)이 쇠(衰)하는 것도……

『조선일보』, 1927년 1월 27일자

이들 광고에 등장하는 반라의 나체 삽화는 기존의 광고와는 달리 성욕, 정력 등 성적 관계와 관련된 용어들과 결합하면서 성적 관심을 환기시킨다. 이로 인해 광고를 보는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나체 삽화를 성애(eroticism)의 대상으로 간주했을 여지가 높다.

신문과 잡지에서 나체화가 특정한 맥락 속에서 기능하는 경우는 주로 소설 삽화에서 나타난다. 1922년 7월, 『개벽』에 게재 된 번역 소설(현진건 역) 〈가을의 하로밤〉에는 김관호의 〈해질녘〉을 떠올리게 하는 이례적인 여성 나체 삽화가 등장하였다 (그림6). 당시 일반적인 대중 매체의 삽화들이 기사의 이해나 소설의 일부 장면을 묘사하는 수준에서 작게 첨부되는 정도였던 반면 안석주(安碩柱)라는 삽화가의



그림6-안석주, 「○傷의 여름」,
『개벽』(1922. 7)

20) 나체 삽화가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표적인 성기능 의약품 광고는 1925년부터 1927년까지 『동아일보』에 나타난 의약품 '사자린(サチリン, Satyrin)'이다. "성욕(性慾)의 감퇴(減退)와 뇌(腦) 쇠약(衰弱)을 곳 부활(復活)케함. 성학(性學)의 세계적(世界的) 권위(權威) 독일(獨逸) 요하네스 미라의 발견약(發見藥)"(『동아일보』, 1925년 10월 15일자); "남녀생식기기능강건(男女生殖器機能強健)"(『동아일보』, 1926년 2월 28일자); "음위(陰痿), 성교불능(性交不能), 성욕불만족(性慾不滿足), 신경쇠약(神經衰弱), 부인 불쾌감병자(婦人不快感病者)의 대복음(大福音)"(『동아일보』, 1927년 6월 5일자). 성기능 강화를 위한 의약 광고는 신문 1면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특히 1925년 『조선일보』에 게재된 성기능강화 약품의 광고에는 1면의 12단 구성 중 2단이 할애되었다. "생(生)의 부활(復活) - 비관(悲觀)으로 낙관(樂觀) · 정력(精力), 훨력(活力)의 원천(源泉) · 1일 1회 취침 전 복용(就寢前服用)의 애모고-루 작용(作用) ▲ 생식기(生殖器)의 장해(障礙) ▲ 생식기(生殖器), 성신경(性神經) 쇠약(衰弱) ▲ 부인성적(婦人性的) 결망(缺亡) ▲ 노자(老者)도 소년(少年)으로 ▲ 장자(壯者)는 익익강장(益益強壯)함 ▲ 무상(無上)의 상쾌미(爽快味)"(『조선일보』, 1925년 10월 23일자).



그림7-〈젊은 깃봄〉,
『신여성』(1924. 12)

이름과 「○傷의 여름」이라는 독립적인 제목이 표기되어 있으며 지면 전체가 할애되었다.

일부 미술사 연구들은 미술이론가이기도 했던 저자의 사회적 배경과 삽화의 표현 양식 등을 고려하여 「○傷의 여름」을 초기 대중적 누드화의 한 사례로 설명한다.²¹⁾ 그러나 당시 대중들이 「○傷의 여름」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 공유된 시선의 지점을 추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개벽』을 비롯한 대중잡지들은 서화를 비롯하여 서양 화화 및 조각 등 다양한 미술작품의 사진을 잡지의 첫 장 표지 다음에 별도 수록하는 편집 방식을 채택했다.²²⁾ 이 지면에는 이따금 서양 나체화나 나체 조각 사진도 등장하였다. 잡지 『신여성』 6호에는 샤반느의 〈가을(l'automne)〉이 최초로 등장하였고 이후 〈젊은 깃봄(1924. 12)〉(그림7)이라는 제목의 나체 조각 사진이 게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 독자는 안석주의 「○傷의 여름」을 독립된 서양 화풍의 누드화 작품이기보다는 소설 삽화로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독자의 시선은 대부분의 소설 삽화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맥락을 토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소설은 남자 주인공 '나'와 한 남자의 정부(情婦)로 궁핍한 삶을 사는 여인 '나타시아'가 우연히 만나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둘의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묘사²³⁾는 「○傷의 여름」에 성애의 서사를 써우면서 결과적으로 삽화를 향한 독자의 시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21) 정형민, 「1920~30년대 총독부의 미술검열」, 『韓國文化』 39호(2007), 222~223쪽.

22) 『개벽』의 경우 창간호부터 14호까지 꾸준히 서양 명화뿐만 아니라 이도영(李道榮, 『개벽』 11호)의 한국화 작품 등을 게재하였으며, 이후로도 이제창(李濟昶, 『개벽』 37호)의 서양화나 김복진(金復鎭, 『개벽』 37호)의 조각 등, 당시 많은 조명을 받는 국내 유명작가들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23) 그녀(厥女)는 연달고 잇달아 나를 키쓰하였다 [...] 그녀(厥女)는 헤일 수 업는 뜨거운 키쓰를 나에게 주었다 [...] 아모 것도 바라지 안코, 아모 것도 구하지 안코 [...] 그녀(厥女)의 보틀어운, 달래는 듯한 속살거림이 나의 귀에는 꿈속을 거쳐오는 듯이 울리였다. 우리는 거괴서 하로밤을 밝히여다…… 코울키이 작, 현진건 역 중, 『개벽』(1922. 7), 39쪽.

중요한 것은 작가인 안석주가 나체화에 ‘그녀(나타시아)’를 투사하였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독자가 소설을 읽어가며 삽화의 여인을 주인공인 ‘그녀’로 간주하게 된다는 점이다.²⁴⁾

안석주는 잡지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통속적인 주제를 주로 다룬던 신문소설 삽화에도 다수 참여하면서 나체 삽화를 그렸다. 신문소설의 삽화는 잡지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였다. 당일 소설이 묘사하는 장면을 그려 넣어 독자가 자연스럽게 소설의 한 장면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가 소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삽화에 대입하면서 나체 삽화는 성애의 서사와 결합하였다.

안석주는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소설 〈재생〉(1924. 11. 9-1925. 9. 28)에 삽화가로 참여했다. 이 작품은 “삼각관계를 기본 구도로, 기독교계 여학생의 모범 생인 김순영이 에로스적 욕망과 재물에 현혹된 배금주의자로 타락하는 과정을 다루는 통속적 신문 연재소설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²⁵⁾



그림8-안석주, 〈재생〉, 《동아일보》,
1925년 2월 11일자



그림9-〈승방비곡〉, 《조선일보》,
1927년 8월 26일자

24) 실제로 안석주는 예술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예술가의 사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추어보면 작가는 자신의 삽화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충분히 짐작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예술(藝術)거기에는 그시대인(時代人)의 생활(生活) 그것이 간접(間接)으로 드러나서 다시 그것에게서 민중(民衆)이 자기(自己)의 생활(生活)을 엿보아 자기(自己)를 알게되는 것이다. 그런 고(故)로 예술(藝術), 즉(即) 예술가(藝術家)의 사명(使命)은 그 시대(時代)의 제반(諸般)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여서 그 민중(民衆)의 경이(驚異)를 부절(不絕)히 일흐키는것이라한다…….” 안석주, 「제5회 협전(第五回協展)을 보고」, 《동아일보》, 1925년 3월 30일자.

순영은 목욕에도 정신이 업셨다. 봉구의 얼굴-석왕사에서 보든 얼굴-앗가보든 얼굴-이 뒤섞겨서 순영의 눈앞에 얼는거였다…….(그림8)

『동아일보』, 1925년 2월 11일자, 〈재생〉 중

192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최독견의 〈승방비곡(僧房悲曲)〉(1927. 5. 10~9. 11)은 “보다 강도 높은 에로티시즘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²⁶⁾

(은숙을 앞에 두고) 그의 관능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는 [...] 그의 동정은 언제까지 온순히 업드려있기를 싫어하였다. 그의 이지는 모든 것을 양보하였다. 묵인하였다. (그림9)

『조선일보』, 1927년 8월 26일자, 〈승방비곡〉 중

〈승방비곡〉의 후속인 최독견의 〈난영(亂影)〉(1927. 9. 30~1928. 3. 7) 또한 성애를 다룬 통속소설로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1927년 10월 5일자 삽화(그림10)에는 여성 나체가 직접적 성애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 나체의 좌우로는 두 명의 남성을 배치시켰는데, 소설의 내용을 통해 ‘장모씨’와 ‘R군’임을 짐작하게 한다. 삽화에 등장한 나체의 여성은 두 남성 사이를 오가던 여성 ‘혜원’을 연상하게 하면서 성애의 서사를 암시하고 있다.

당신(혜원)에게 대한 경멸의 감정을 [...] 나(장모씨)의 품에서 당신을 뺏어간 R군에게.....

『조선일보』, 1927년 10월 5일자, 〈난영〉 중



그림10-안석주, 〈난영〉, 『조선일보』,
1927년 10월 5일자

신문, 잡지 외에는 일본에서 유입된 단행본이 중요한 나체화의 경로가 되었다. 1920년대 국내에는 다양한 분야의 일본 서적이 유통되었는데 1920년대 대표적 한글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일본 출판사들이 출간한 다양한

25) 이길연,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나는 욕망의 변모 양상 - 작중인물의 심리적 변이와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16호(2001), 344쪽.

26) 김종철, 「상업주의 소설론」(창작과 비평사, 1983); 이계열, 「승방비곡(僧房悲曲)의 사랑의 기호」, 『인문학연구』 12호(2008), 113쪽에서 재인용.

서적의 광고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출간된 단행본이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국내 독자 사이에서도 널리 읽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국내 유입된 일본 서적의 대다수는 성의학(sexology)²⁷⁾을 다루고 있는데 나체 삽화는 남녀 신체 묘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처녀와 부인의 성적 생활(處女及妻の性的生活)』(1923)(그림11)²⁸⁾은 1920년대 초반 신문광고란에 등장한 대표적인 성 관련 서적으로²⁹⁾ 여성의 신체와 생식기, 성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성의학 서적은 “성기(性器) 등의 인체 해부도를 포함시켜 성욕과 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포르노그래피와 과학 사이에 있는 새로운 지식이자 문화”였다.³⁰⁾ 성의학 서적을 향한 대중의 시선의 성격은 신문 광고에서 나타난다.

‘여자육체의 구조, 성적 작용, 성욕발작 등을 노골로 설명한 [...]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의 동작을 밀도입(密圖入)으로 상세히 해부설명한 최신쾌작’ 등의 문구³¹⁾는 여성 독자가 아닌 여성의 성(性)적 작용에 대한 남성들의



그림11-『처녀와 부인의 성적 생활』광고, 《동아 일보》, 1923년 7월 1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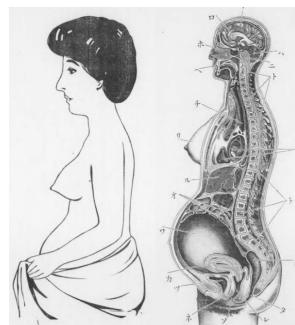


그림12-『처녀와 부인의 성적 생활』수록 삽화

27) 김연숙에 따르면 “성의학 혹은 성과학은 서양을 중심으로 19세기 말 독일어권에서 시작한 정신의학의 인접과학으로 성과 생식을 분리하고 성애를 인정하는 새로운 담론” 이었다. 김연숙,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성과학 담론」, 『성평등연구』 11호(2007).

28) 澤田順次郎, 『處女及び妻の性的生活』(正文社, 1923).

29) 『處女及妻の性的生活』의 광고는 1923년부터 1925년까지 3년간 《동아일보》에 27회나 등장하였다. 1923년 14회, 1924년 9회, 1925년 4회. 《동아일보》 DB 검색 기준.

30) 천정환, 「관음증과 재현의 윤리: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적 시각’의 성립에 관한 일 고찰」, 『사회와 역사』 81호(2009), 49쪽.

31) ♥도해(圖解)♥, 处女及妻の性的生活(처녀와 부인의 성적생활)

△ 여자육체(女子肉體)의 구조(構造), 성적작용(性的作用), 성욕발작(性慾發作) 등을 노골(露骨)로 설명(說明)한 최신간(最新刊)! 인생의 꽃이라고 자랑하는 처녀(處女), 모양(姥櫻)이 아직 색향(色香)을 불실(不失)한 처(妻)가 내면적(內面的)으로 기(起)하는 성욕(性慾)의 충동(衝動), 본능적발작(本能的發作) 등 총(總)히 여자육체(女子肉體)의



그림13-『남녀생식기지도해』 광고, 《조선일보》, 1927년 1월 29일자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광고문은 여성의 국부(局部)에서부터 신체 곳곳을 세밀하게 묘사한 ‘은밀한 그림(密圖)’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 서적에 수록된 여성의 나체 그림이란 주로 의학적 해부도였다 (그림12).

성 서적 광고와 나체 삽화는 20년대 중반에도 지속되었다. 1925년 10월 24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남녀의 육적 변화(男女の肉的變化)』라는 서적 광고³²⁾에는 가슴을 드러낸 여성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³³⁾ 그림13은 1927년 신문에 실린 『남녀생식기도해전서(男女生殖器圖解全書)』(1925)의 서적 광고 문구이다.

여자(女子)를 원(願)하는 인사(人士)나 원(願)치 아니하는 인사(人士)는 견(見)하라.
부록: 성교법의 연구, 임신법의 연구, 화룡(花柳)병예방법 [...] 밀도임(密圖入).....

『조선일보』, 1927년 1월 29일자.

태아를 둘러서 태아가자서 애쓰시는 분은 꼭 읽어주시오. 밀도입(密圖入), 2대부록:
성교법, 임신, 피임의 신연구. 『조선일보』, 1927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 1927년 2월 17일자.

구조작용(構造作用), 성직관계(性的關係)를 치녀(處女), 치(妻), 모(母)에 구별(區別)하여 생식기(生殖器)로부터 성교(性交)에 의(依)한 육체(肉體)의 변화(變化), 국부(局部)로부터 제기관(諸器官)의 본능적(本能的)총작(衝作)기타(其他)보통인(普通人)의 각득(覺得)치못할 내부(內部)의 동작(動作)을 밀도입(密圖入)으로 상세(詳細)히 해부설명(解剖說明)한 최신책(最新快書). 『동아일보』, 1923년 7월 16일자.

32) 남녀(男女)의 육적 변화(肉的變化), 남녀(男女) 미용비법(美容秘法)과 화류병(花柳病)
◆ 성욕(性慾)에 관(關)한 구류(舊類)는 ○多하야 모다 ○○가 만흔 책자(冊子)뿐이나
본서(本書)는 여사(如斯)히 무○임(無○任)한 것은 아닙니다. 저 유명한 음미(音尾)선
생이 다녔고 심연구(多年苦心研究)한 결과(結果)를 적나라(赤裸裸)하게 발표(發表)한
것으로 일본(日本)제일(第一)의 성적교과서(性的教科書)입니다. 그 자상(仔詳)하고 면
밀(綿密)한 설명(說明)은 타에 비류(比類)업승 성(性)에 번민(煩悶)하는 남녀(男女)는
필독(必讀)의 서. 난문(難問)은 일독(一讀)에 흘연(忽然) 춘설(春雪)이 슬 듯. 《조선일
보》, 1925년 10월 24일자.

33) 『남녀의 육적 변화』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비슷한 시기인 1927년에 일본에서 발행된 『女の肉的研究』를 통해 대략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서적은 1915년판의 개정본으로 발행처가 實業之世界社에서 思潮社로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羽太銳治, 『女の肉的研究』(實業之世界社, 1915); 羽太銳治, 『女の肉的研究』(思潮社, 1927).

신혼이나 미혼이나(新婚及未婚) 남녀(男女)는 필(必)히 보시오. 부록: 부부화합(夫婦和合)의 비결(秘訣).

『조선일보』, 1927년 5월 26일자.

도쿄(東京) 기양사서원(己羊社書院)이 출간한 『남녀생식기 도해전서』는 총 125쪽,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남녀 생식기의 생물학적 특징과 이상 증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³⁴⁾ 국내 광고문이 주로 강조 한 성교법이나 피임법, 화류병 예방법은 이 중 일부로, 성애서적보다는 일반 가정 의학서적의 성격에 가깝다. 광고는 은밀한 도판이 첨부되어 있음을 강조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첨부된 도판들은 『처녀와 부인의 성적 생활』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인 해부도 등이 주를 이루었다(그림14). 일본에서 유입된 성의학 서적에 수록된 여성 삽화들은 병리학적 설명을 위한 그림인 동시에, 성애를 암시하는 비밀의 그림(密圖)이었다.

이처럼 1920년대 잡지, 신문 그리고 단행본에 나타난 나체 삽화들은 소설이나 성의학과 결합하면서 은밀한 그림 내지는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위한 성애의 도상(圖像)으로 기능하였다. 이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나체 삽화를 성애의 도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나체화에 대한 검열이 제도적으로 미비하였거나 당국의 무관심에 의해 주목받지 못한 결과였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³⁵⁾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적어도 나체 삽화를 향한 대중의 성애적 시선이 무조건적으로 ‘외설’로 간주되었던 것 역시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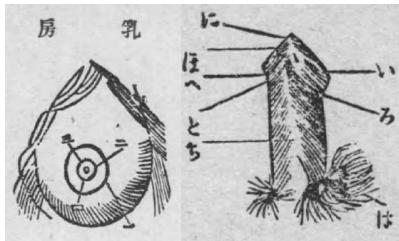


그림14-『남녀생식기 도해전서』(1925) 수록
삽화(좌 21쪽, 우 31쪽)

2) 누드화

그렇다면 근대 미술사 연구들이 미술로 규정해온 서양 누드화를 대중은

34) 花柳隱士, 『男女生殖器圖解全書』(己羊社書院, 1925).

35) 실제 1920년대 후반 풍속검열이 강화되기 이전까지 나체화에 대한 명확한 검열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20년대 초·중반 검열의 수위를 추정할 만한 일부의 사례로는 이 글의 그림17과 그림18에 관한 부분을 참고할 것.



그림15-김창섭,〈목욕 이후(浴後)〉,
《조선일보》, 1925년
10월 20일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920년대 누드화에 대한 기준 연구는 주로 조선미전에 등장한 예술로서 누드화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대중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누드화는 출판물, 그중에서도 화집에 수록된 누드화 또는 누드 조각 사진이었다.

나체 삽화와 비교하여 누드화 사진이 신문·잡지에 등장한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신문에 누드화가 등장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1925년 10월 20일자 《조선일보》 3면에는 김창섭

(金昌燮)의 누드화 〈목욕 이후(浴後)〉가

수록되었다(그림15). 특이점은 누드화와 관련된 기사 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인데, 적어도 누드화가 실린 당일 3면에 수록된 다른 기사 등을 통해 편집자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사진의 오른쪽에는 당시 문학경향에 대한 논평 「문예잡감(文藝雜感)」이 실렸으며, 왼쪽으로는 연재소설 〈청의야차(青衣夜叉)〉와 「학예담화실(學藝談話室)」이라는 짧은 사설, 그리고 〈가을바람〉이라는 제목의 시가 게재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일 3면은 당시 문화계 동향을 소개하는 문예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창섭의 누드화는 당시 화단의 주목을 받는 작가와 그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³⁶⁾ 그러나 누드화를 미술로 간주한 편집자의 의도와는 달리 독자인 대중이 누드화 사진을 미술로 간주하였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누드화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택, 구매한다는 점에서 화집 및 단행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920년대, 성의학 서적들과 함께 일본에서 출간된 누드화집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은 손쉽게 누드화집을 구매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³⁷⁾

36) 이 외에도 1927년 10월 26일자 3면에 이제창의 누드화 〈나체(裸體)〉를 문예면에 수록하면서 관련 서술을 배제하였다.

37) 일본의 경우 1900년 전후 이루어진 누드화집에 대한 제재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1920년대에 이르면 다양한 미술화집과 누드화집이 허용되었다. 『나체미(裸體美)』(1924)나 『수수께끼의 신비 나체미(謎の神秘 裸體美)』(1928)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16-『미술나체미인사진화집』(1923)



그림 17-『미술나체미인사진화집』
국내 광고문, 『동아일보』,
1923년 11월 4일자

『미술나체미인사진화집(美術裸體美人寫眞画集)』(1923)(그림16)³⁸⁾은 이 시기 일본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서양 누드화 사진집으로 유명 살롱화와 누드 조각 촬영사진을 모은 단행본이었다. 이 화집은 수차례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성의학 서적과 마찬가지로 광고문을 통해 당시 대중들이 공유했던 시선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미술나체미인사진화집』의 국내 광고문
일견(一見)에 홀연(忽然)히 전권(全卷)에 표출(漂出)한 육체(肉體)의 향기(香氣)에 취(醉)하는 나체미인(裸體美人) 사진화집(寫眞畫集).

염려(艷麗)함이 꽃과 같은 절세미인(絕世美人)이 대 적나나(赤裸裸)로 현출(現出)하는 풍만(豐滿)한 육체(肉體)의 곡선미(曲線美)의 미술적(美術的)이고 병(併)하여 노골(露骨)한 자태(姿態)는 일견(一見)에 홀연(忽然)히 황홀(恍惚)하여 결심(決心)의 소(笑)가 자연(自然)히 발(發)하고 말할 수 없는 ○○을 각(覺)함 ……, 『동아일보』, 1923년 11월 4일자.

이 화집의 국내광고(그림17)에는 가슴을 드러낸 누드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광고문구는 누드화를 미술이기보다는 나체 삽화와 같은 성애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화집은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광고를 통해 소개되었는데 양국 간 광고문을 비교하면 누드화집을 향한 시선의 차이를

누드화만 전문적으로 다룬 화집들로, 화집 전면에 서양 누드화와 조각 사진을 수록하였다. 출간연도를 전후로 경보국 금지단행본 목록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국의 허가아래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櫻井均, 『裸體美』(春江堂, 1924); 内外出版協會, 『裸體美: 謎の神秘』(内外出版協會, 1928).

38) 正文社, 『美術裸體美人寫眞画集 第2輯』(正文社, 1923).

확인할 수 있다.

『미술나체미인사진화집』의 일본 광고문³⁹⁾

아름다운 꽃과 같은 절세의 미인이 대담하고 적나라하게 표현된 풍만한 육체의 곡선미, 미술적이고 노골적인 하얀 피부의 풍만한 사지는 예술적 나체 습작의 본보기.

일본 내 광고가 누드화를 ‘예술적 나체 습작(芸術的裸體習作)’으로 조명한다면 국내 광고는 ‘황홀(恍惚)하야’, ‘소(笑)가 자연(自然)히 발(發)하고’, ‘말할 수 없는 ○○을 각(覺)함’ 등의 표현을 통해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나체 삽화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누드화를 성애의 도상으로 묘사한 광고나 성적 호기심으로 누드화를 바라보던 대중의 시선과 구매 또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일본의 초기 나체화 수용과정과 비교·정리해보면 나체화를 둘러싼 1920년대 한국 근대 대중문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나체 자체를 무조건적인 외설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누드화뿐만 아니라 나체 삽화가 대중매체를

통해 범람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18-『미술나체미인사진화집』광고문, 『조선일보』, 1925년 11월 26일자

둘째, 나체화는 성애의 서사와 연루되어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각적 도구로 활용되었지만 그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은 성애의 서사가 곧 외설로 간주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미술나체미인사진화집』의 광고는 당시 성애의 서사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광고는 몇 년간 신문지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는데, 같은 서적의 1925년 광고(그림18)를 살펴보면 여성의 가슴이 삭제되어 있는 반

39) “艶麗花の如きの絶世の美人が大膽にも赤裸々に現せる豊満なる肉體の曲線美の美術的にして如何に露骨なるか雪白の肌豊満なる四肢實に芸術的裸體習作としての範たるべし。澤田順次郎。”『性の芽萌之』(東京: 正文社書房, 1924)에 실린 자매서적 광고 중.

면 기존의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변화의 원인이 총독부 경무국의 제재인지 혹은 신문사의 자체 검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나체화를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묘사한 광고문구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192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나체화뿐만 아니라 나체화를 성적 도상으로 바라보며 활용하는 것이 반유교적 전통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논란을 유발시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서양화법의 누드화가 예술이란 명목으로 한국사회에 등장하였지만 대중영역에서는 주로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남성들의 감상품이자 수집품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누드화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에 별다른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920년대 한국사회에서 예술과 외설이 지칭하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판단기준에 따라 나체화는 예술과 외설로 구별되었는가.

IV. 예술과 외설 판단의 기준

1920년대 국내 외설물에 관한 법령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법적 해석의 근거가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1936년 외설물 제재에 관한 법령⁴⁰⁾이 등장하기 전까지 나체화를 둘러싼 외설 판단의 기준은 검열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추정해야 한다. 다음 사건은 1920년대 당시 외설의 성격을 암시한다.

40) 풍속 괴판 신문지 출판물 검열표준(「조선출판경찰개요」, 1936) 1. 춘화, 음본(淫本)의 류. 2. 성, 성욕 또는 성애 등에 관한 기술로써 음외(淫猥) 수치의 정을 일으켜 사회의 풍교(風教)를 해치는 사항. 3. 음부를 노출한 사진·회화·그림엽서의 류(아동은 제외). 4. 음부를 노출치 않았으나 추악 도발적으로 표현한 나체 사진·회화·그림엽서 류. 5. 선정적 혹은 음의 수치의 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남녀 포옹·접물(아동은 제외)의 사진, 회화류. 6. 난륜(亂倫)의 사항, 단 난륜의 사항을 기술하여도 차사평담(借辭平淡)하고 거듭 선정적 혹은 음의한 자구의 사용이 없는 것은 아직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치 않는다. 7. 타태(墮胎)의 방법 등을 소개한 사항. 8. 잔인한 사항. 9. 유리(遊里), 마굴(魔窟) 등을 소개하여 선정적이거나 또는 호기심을 도발하는 것 같은 사항. 10. 서적 또는 성구(性具)약품 등의 광고로써 현저하게 사회의 풍교를 해칠 사항. 11.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사항.

전람회(展覽會)구경군에 나체화(裸體畫)팔다가 경찰서구경

십칠일 오전열한시경에 시내본당서 보안계 주임암해는 일본인 한명이 엄중한 취도를 밟고 잇섰다는데 그는 일본 대관부(大阪府: 오사카) 출생인 삼곡가치(三谷嘉治)로 이번에 개최된 박람회를 이용하여 부정한 리익을 목적하고서 라테(裸體)미인의 그림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음란한 문구를 라벨하여 길가는 사람들에게 이십전식에 팔다가 그와가티 테포되어 취도를 바든것이라더라.⁴¹⁾

『조선일보』, 1926년 5월 18일자.

신문기사에서 지목하는 나체 그림은 법적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외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라테(裸體)미인의 그림’이라는 점과 당시 춘화는 나체화와 구분하여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남녀 간의 성애장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누드화 내지는 나체 삽화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음란한 광고 문구를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성애의 서사와 연루되어 구경꾼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성애의 서사와 결합한 나체화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보면 나체화 그 자체가 아닌 어떤 특수한 외적 요인에 의해 외설로 간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나체를 다루면서 성애의 서사와 결합한 이 그림의 차별점은 판매와 감상이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즉, 나체화에서 ‘외설’이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장소에서 대중적 감상이 이루어지는 가리는 장소적 특수성과 감상 방식이라는 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외설이라 함은 나체화나 음란한 문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체화를 허가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판매·감상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판단기준 또한 나체화에 담긴 내부적 특성이 아닌 외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일본의 초기 나체화 수용과정에서는 누드화와 직접적인 관계

41)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나체 그림과 조선미전의 연관성이다. 당시 실물 누드화를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전람회장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사에 등장하는 나체화 판매자는 전람회의 누드화를 감상하러 온 관객을 나체 그림의 중요한 수요자로 예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누드화를 향한 대중적 시선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여성 나체를 다룬 작품들은 특별히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1925년 관련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선(視線)을 끄는 여러 가지 작품 중 장중 일반 관중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문제의 김복진씨 「나체습작(조각)」이었다. 부상한 상처를 보려고 작품을 들려서 이중 삼중으로 썼었으며…….” 『조선일보』, 1925년 6월 2일자.

가 있는 작가나 학생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면서 예술이란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제작과 생산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반면 1920년대 한국사회에서 예술이란 제작의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된 조선미전이라는 지정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감상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예술이란 작품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 다수가 감상하는 행위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술 판단의 기준이 감상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은 조선미전의 개최 의도와 누드화 공개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관립 공모전이라는 점에서 조선미전은 주관처인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였다. 1회 조선미전에는 누드화로 입선한 사례가 없었다. 대신 '참고 품(参考品)'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문부성이 출품한 누드화가 전시되었는데 이 중 하나가 일본 누드화 논쟁의 주인공인 구로다 세이키의 〈백부용(白芙蓉)〉(1907)(그림19)이었다. 관보인 《매일신보》는 참고품과 관련하여 '여명기에 있는 조선미술의 발달을 돋고자 첫날부터 현대의 대표적 작품들을 참고품으로 전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²⁾ 이를 토대로 보면 누드화는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고상한 감상물로, 주목해야 할 서양 미술이자 권장과 참고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³⁾

반면 주최 측은 일본의 누드화를 중요 참고품으로 소개하고 감상을 독려하면서도 대중 매체를 통해 누드화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림19-구로다 세이키,
〈백부용(白芙蓉)〉
(1907)

42) 미전참고품(美展參考品) 진열개체(陳列改替)

금일부터 죄흔작품으로 진렬을 뱃굴터 :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방금려명귀에잇는 조선미술의 발달을 도읍고저 처음날부터 참고품으로서 현대의 대표적 작품들을 다수 히진렬하엿셨던바 다시금 십오일 브티는 또한 그일부의 진렬을 뱃굴터임으로 더욱볼 만한 것이 만흐리라는데 [...] 서양화에는 심사원 흑단청휘(黑田清輝: 구로다 세이키)화 백이 이태리(伊太利) 만국박물회에 출품하여던 대작품..... 《매일신보》, 1922년 6월 15일자.

43) 제1회 도록에서 주관기관인 조선총독부의 학무국장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발달해오던 조선의 미술이 이조시대에 이르러 중엽 이래 점차 쇠퇴해져왔으나, 제국(帝國)의 시정 이래 문명의 혜택이 나날이 퍼져 각종 방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미술장려를 위해 공적인 전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도록의 서문 중. 목수현, 「조선미술전람회와 문명화의 선전(宣傳)」, 『사회와 역사』 89호(2011), 89쪽.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당국은 1회에 이어 1923년 2회에서도 누드화를 대중에게 공개하면서도 사진촬영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이란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감상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20년대 초기 나체화 수용과정에서 예술과 외설은 예술행위 또는 외설행위라는 나체화를 대하는 대중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예술과 외설을 구별하는 것은 나체화를 감상하는 행위와 방식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V. 맷음말

살펴본 바처럼 나체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192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초기 일본파는 달리 여성 나체를 표현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외설’로 간주되거나 금지된 것만은 아니었다. 대중은 조선미전의 누드화를 비롯하여 신문, 잡지 및 단행본 등을 통해 쉽게 나체화를 접할 수 있었으며 나체화가 성애의 서사와 결합한 경우에도 검열의 역할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당시 여성 나체 그 자체나 성애의 서사가 나체화를 예술 혹은 외설로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예술과 외설은 대상에 내재한 속성이 아니라 나체화를 다루는 행위와 방식에 의해 차별되는 영역이었다. 같은 나체화라 하더라도 감상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예술 혹은 외설로 간주되었다. 누드화는 그 자체로서 예술이기보다는 특정한 장소와 감상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했다. 조선미전에서는 ‘고상함을 기르기 위한 예술’로 간주되면서도 동시에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돋우는 도상(圖像)으로 활용되었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나체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1920년대를 중심으로, 나체화를 향한 대중의 시선과 사회적 대응 양상을 살피면서 당대의 예술과 외설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한국사회에서 예술과 외설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나체화의 양상은 192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1928년 나체화에 대한 풍속검열의 강화되면서 각종 대중 매체에서 나체화

가 제한되었다.⁴⁴⁾ 검열기준의 변화와 더불어 외설의 의미 또한 새롭게 개편되었다. 여성의 나체를 표현하는 일체의 그림이 전면 금지되면서 여성의 나체라는 대상 그 자체가 외설을 의미하게 되었다.⁴⁵⁾

1931년 나체화에 대한 기준은 다시 한 번 변화한다. 나체화에 대한 검열이 완화되면서 외설의 영역은 또다시 변화하였다.⁴⁶⁾ 이러한 변화의 흔적은 적어도 1920년대 중반까지는 여성의 나체가 직접적으로 외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외설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음을 보여준다. 1920년대 후반 이후 나체화와 이를 둘러싼 예술과 외설의 의미는 ‘풍속검열’의 성격과 배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44) 라테화취체(裸體畫取締)를 각경찰부(各警察部)에 명령(命令):

근래 조선에도 서양라테화 혹은 춘화가 만히 수입되어 사진덤 혹은 회엽서 상덤 진렬 상에 진렬하야 풍괴를 문란케하는 일이 차차만히간다. 하야 경무국 경무과에서는 각 도 경찰부에 명령을 발하야 그런 종류의 사진 혹은 인쇄물은 엇던 종류의 것을 물론하고 엄중히 단속하는 중이라는데 일본에서 허가하는 조각물(彫刻物)을 복사한 사진까지 판매를 금지한다더라. 《동아일보》, 1927년 11월 22일자.

45) 검열기준의 변화는 총독부의 출판물 검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검열관계 간행물 중 동일제호로 가장 규칙적이고 장기간 발간된 기록물은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 (이하 월보)로 1928년 9월분(제1호)부터 시작하여 1938년 11월분(제123호)까지 발간되었다. 이 밖에 『조선총독부 금지단행본목록』(禁止單行本目錄)에서도 1920년대 후반 나체화 출간물에 대한 검열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나체화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의 한 사례로는 1928년 9월 월보 금지목록에 오른 서양[태서(泰西)]의 유명 누드화를 다룬 화집 『태서나체명화집』(泰西裸體名画集)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1920년대 중반까지 신문 광고가 허용되었던 성의학 서적들 또한 금지단행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科, 『朝鮮出版警察月報』(1928~1938);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科, 『禁止單行本目錄』(1941).

46) 「애로」당(黨)에 희소식(喜消息), 싸늘한 경찰당국의 머릿속에도 우습치는 “애로”的 시대적 풍조.

완화(緩和)될 검열표준(檢閱標準): 성적(性的)문제를 취급한 출판물에 대한 경무국의 검열은 일본의 그것보다 엄밀하야 일본에서 발행하는 잡지 단행본도 조선에서는 벌매 금지의 처분을 하야 앗스리만큼 조선관헌의 이에대한 단속의 표준이 엄중하야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적풍조라할만큼 재래의 도덕에 비최어 매우문란한 성(性)문제에 대한 비판소개가 로골화하얏스며 약국(藥局) 점두에서는 공공연하게 피임약을 발매할 만치 풍조가 급변하엿슴으로 이대세에도 역행할수업서 최근에는 그 표준을 완화하야 일본에서 허가하는 것은 대개 그대로 용인하고 조선에서 발행하는것도 그 정도를 벼서 나지안케하기로 방침을 고치엇다고 한다.

[초심(草深)사무관(事務官)담(談)] 이에 대하여 초심 도서과 사무관은 “풍기물란의 넘려가잇는 출판물이 이입되는것도 만코 조선에서 출판하는것도 최근에는 풍기상조치못한 것이 만흐나 대세는 어쩔수 업습으로 심한 것이 아니면 그대로 대개통과시키기로 하얏습니다”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0년 10월 23일자.

참 고 문 헌

- 김동일, 『예술을 유혹하는 사회학』. 갈무리, 2010.
- 김연숙,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성과학 담론」. 『성평등연구』 11호, 2007, 45–59쪽.
- 김영나, 「한국 근대회화에서의 누드」. 『서양미술사학회』 5호, 1993, 31–52쪽.
- 목수현, 「조선미술전람회와 문명화의 선전(宣傳)」. 『사회와 역사』 89호, 2011, 85–115쪽.
- 유모토 고이치 저, 연구공간수유 역,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10.
- 이계열, 「승방비곡(僧房悲曲)의 사랑의 기호」. 『인문학연구』 12호, 2008, 135–174쪽.
- 이길연,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나는 욕망의 변모 양상-작중인물의 심리적 변이와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16호, 2001, 343–359쪽.
- 정형민, 「1920~30년대 총독부의 미술검열」. 『韓國文化』 39호, 2007, 203–226쪽.
- 천정환, 「관음증과 재현의 윤리: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적 시각’의 성립에 관한 일 고찰」. 『사회와 역사』 81호, 2009, 37–68쪽.
- 최유경, 『일본 누드 문화사』. 살림, 2005.
- 피에르 부르디외 저,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 川井景一, 『西洋美術資料 1~6』. 寫眞版印刷所, 1898.
- 羽太銳治, 『女の肉的研究』. 實業之世界社, 1915.
- _____, 『女の肉的研究』. 思潮社, 1927.
- 正文社, 『美術裸體美人寫真画集 第2輯』. 正文社, 1923.
- 澤田順次郎, 『處女及び妻の性的生活』. 正文社, 1923.
- _____, 『性の芽萌之』. 正文社, 1924.
- 櫻井均, 『裸體美』. 春江堂, 1924.
- 花柳隱士, 『男女生殖器圖解全書』. 己羊社書院, 1925.
- 内外出版協會, 『裸體美: 謎の神秘』. 内外出版協會, 1928.
- 日本内務省警保局, 『禁止單行本目錄, 明治21年~昭和9年』. 1935.
-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科, 『禁止單行本目錄』. 1941.

- Alexander, James, "Obscenity, Pornography, and Law in Japan: Reconsidering Oshima's 'In the Realm of the Senses'."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4, 2003, pp. 148–168.
- Becker, Howard, "Art as collective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4, pp. 767–776.
- _____, *Art worl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 Danto, Arthur, "The artworld."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61, 1964, pp. 571-584.
- Dejean, Joan, *The Reinvention of Obscenity: Sex, Lies, and Tabloids in Early Modern Fra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 Kim, Youngna, "Artistic Trends in Korean Painting during the 1930s." *War, Occupation, and Creativity: Japan and East Asia, 1920-1960*, Hawaii University Press, 2001.
- Volk, Alicia, *In pursuit of universalism: Yorozu Tetsugorō and Japanese modern 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동아일보(東亞日報)』, DB.

『매일신보(每日申報)』, 축쇄본, DB.

『조선일보(朝鮮日報)』, 마이크로필름, DB.

『개벽(開闢)』, 1920. 5-1926.8, 영인본.

『삼천리(三千里)』, 1929. 6-1941. 11, 영인본.

『신여성(新女性)』, 1923. 9-1934. 4, 영인본.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科, 『朝鮮出版警察月報』. 1928-1938.

국 문 요 약

근대 한국사회에서 ‘나체화(裸體畫)’는 여성의 알몸을 그린 그림을 지칭하는 용어로, 서양 미술의 유입과 인쇄출판의 성장 속에서 등장하였다. 나체화 중에서도 누드화는 서양 예술의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동시에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글은 1920년대 다양한 나체화의 수용과정을 살펴보고 예술과 외설의 사회적 의미와 경계를 살펴보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누드화 논란이 서양 미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당대 유교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총독부 검열이 일부 누드화를 외설로 간주하고 통제하여 누드화가 예술로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초기 일본과 달리 여성 나체를 표현하는 데 비교적 관대했다. 1920년대에는 다양한 여성의 알몸을 그린 나체화가 사회적 허용 아래 범람하였다. 신문·잡지에는 성애(eroticism)와 연관된 여성 나체 삽화와 일본의 성(性)서적 광고가 수록되었다. 나체화가 성애의 서사와 결합한 경우에도 검열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1922년 총독부가 주도한 조선미술전람회가 개최되면서 서양 누드화가 대중 앞에 등장하였다. 나체화가 범람하던 시기, 누드화는 서양 미술이자 동시에 성애의 도상(圖像)이었다.

여성 나체라는 표현대상 그 자체나 성애의 서사는 예술과 외설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 이 시기 예술과 외설은 대상에 내재한 속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체화를 다루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같은 나체화라 하더라도 감상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식에 따라 예술 혹은 외설로 간주되었다. 나체화는 예술과 외설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술행위와 외설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었다.

투고일 2013. 9. 20.

심사일 2013. 11. 6.

제재 확정일 2013. 11. 15.

주제어(keyword) 예술(art), 외설(obscenity), 나체화(naked), 누드화(nude), 조선미술전람회(Joseon Art Exhibition), 검열(censorship)